

크리스찬 디오르 컬렉션에 나타난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 이미지⁺

최진영* · 조규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Study on Madeleine Vionnet Design Image Shown at the Christian Dior Collections

Choi, Jin-Young* · Cho, Kyu-Hwa

Ph.D.,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Emeritus, Prof.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Madeleine Vionnet, a female fashion designer who left an enormous legacy an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high added-value fashion industry. Her techniques can be dividing in to three types: the bias cutting, the design by geometrical methods, and the classical style of ancient Greek clothing. This research also intended to study the design cases in which Vionnet's drapery images are applied to modern fashion, mainly the haute couture works that have appeared at Dior collections since 2000.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Madeleine Vionnet's design, First, she produced the best achievement in dress and ornament history by developing a new technique called bias cutting. Second, her work was groundbreaking because it changed the previously planar approach to the female body into a solid conception by cutting and connecting geometrical pieces in the form of quadrangle, triangle, and a quarter-circle. As a result, her works depicted feminine beauty to the fullest extent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human body, excellent materials, and the most sophisticated technology and personal skill. Third, her approach was a classical style tinged with the Greek costume image. With this style, which was born by reinterpreting the key tone of the Greek epoch in a modern way, and transcending and even changing tradition, she created a form of beauty that only she could.

Key Words : Madeleine Vionnet(마들렌 비오네), bias cutting(바이어스 커팅), John Galliano
(존 갈리아노)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내용을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Choi, Jin-Young, Tel.+82-2-10-8917-7743
E-mail: modus1101@naver.com

1. 서론

세기를 풍미했던 디자이너의 디자인은 그 시대의 디자인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진다. 이것은 과거의 복식이 반복되는 복고풍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역사적 회귀(레트로)와 이국취미(민속풍)는 패션의 내용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고전에 대한 회귀는 고전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고, 새로운 표현의 요구에 대한 충족을 고전세계에서 찾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¹⁾

그 대표적인 사례로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 ; 1876~1975, 프)의 바이어스 재단법은 20세기를 특징짓는 요소인 순수성의 지향을 표현하면서 현대 패션에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낼 수 있는 귀중하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적 발판이 되어 패션계에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패션 경향에서 화제를 낳고 있는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의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비오네 이미지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이어스 재단의 재창조 작업을 통해 최근 패션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인 복고풍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통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다양성과 새로움을 중시하는 최근 패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크리스찬 디오르의 컬렉션에 나타난 비오네 디자인 이미지를 연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패션계에 큰 업적을 남기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패션에 크게 이바지한 여성 패션디자이너인 비오네의 디자인 특성을 바이어스 커팅, 기하학적인 방법에 의한 디자인, 고대 그리스 복식 이미지의 클래식 스타일의 3가지로 크게 나누어 고찰하고, 비오네 드레이핑 이미지가 현대 패션에 적용된 디자인 사례를 크리스찬 디오르 컬렉션에 나타난 2000년대 이후 오트 쿠튀르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는 비오네의 전체적인 디자인 특성과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가 크리스찬 디오르 메종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2000년 S/S-2009/10년 F/W) 오트 쿠튀르 컬렉션의 작품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비오네의 선행 연구²⁾에서 베티 커크(Betty Kirke)는 저서인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에서 비오네 드레스의 기하학적 특징을 실증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지만 이것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김희균, 조규화³⁾는 그녀의 전체적인 디자인 경향은 언급하고 있으나 비오네 드레이퍼리가 후대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디자인을 취급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최진영, 조규화⁴⁾는 “마들렌 비오네의 디자인 연구”에서 비오네의 디자인을 1930년대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동시에 샤넬(Gabrielle Chanel : 1883~1971, 프)과 스키피아펠리(Elsa Schiaparelli : 1890~1973, 이)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했으며, 이도 역시 비오네 드레이퍼리가 후대 패션 디자이너에게 미친 영향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오네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그녀의 디자인 특성을 밝히고 여기에 비오네 드레이퍼리의 현대적 적용을 2000년대 이후 최근의 디오르 오트 쿠튀르 컬렉션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분석하는데 패션 관련 서적, 컬렉션 전문 잡지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의 문헌연구와 시각자료를 참고하였다.

II. 비오네 디자인의 특성

비오네는 바이어스 재단이라는 독특한 기술력을 발표하여 20세기 의복 제작 기본 기술의 선봉에 있으며, 이것은 현대 패션에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낼 수 있는 귀중하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적인 발판이 되어 패션계에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연구자는 비오네의 디자인 특성을 ①바이어스 커팅 ②기하학적인 방법에 의한 디자인 ③그리스 복식 이미지의 클래식 스타일로 나누어 그 특성을 3가지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바이어스 커팅(bias cutting)

마들렌 비오네<그림 1>⁵⁾는 1929년 인체의 순수미를 추구하는 바이어스 커팅(bias cutting)<그림 2>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여 복식 역사상 최

고의 업적을 이루었다. 이것은 아르누보시대의 과잉 장식에서 벗어나 순수한 형태를 추구하는 미로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과 기술력의 결합은 결국 개개인의 여성이 갖는 개성과 아름다움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어스 커팅은 이전에 드레스가 무시했던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실루엣을 완벽하게 표현해주면서 드레이프의 정수⁸⁾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비오네의 최대 관심사였던 섬유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경사와 위사의 중간부분인 바이어스 방향이 탄력성과 유연성의 특이한 힘으로 작용되는 것을 발견⁷⁾함으로써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복식미와 여성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

“그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웃으면 그 드레스도 함께 웃을 것이다.”⁸⁾라고 말한 비오네는 옷감과 인체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결국 섬세함과 치밀성을 갖는 아름다운 형태의 드레스를 완성하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천에 생기는 주름은 울동미와 리듬감을 창조하였다.



<그림 1> 목제인형으로 작업 중인 비오네, 1923
- *Madeleine Vionnet 1*, p.6.



<그림 2> 비오네의 바이어스 커팅 드레스, 1929
- *Madeleine Vionnet 1*, p.23.

2. 기하학적인 방법에 의한 디자인

비오네의 기하학적인 방법은 사각형·삼각형·사분원에 의한 디자인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오랜 훈련으로 얻은 독특한 기술로 이는 작품을 모드로 이해하기 보다는 건축물처럼 인식하여 인체와 자연스럽게 조화시켜 가장 엄격한 기술력으로 완성시켰다. 그러면서 비오네의 작품은 인체와 소재 그리고 아주 정밀한 드레이핑 기술과 감각이 어우러져 여성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하였다.

그녀의 사각형에 의한 디자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한 것으로 닛트와 커팅선을 최소화시켜 원통형의 천으로 여유 있게 몸을 감싸도록 재단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키톤과 기모노의 평면적인 의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시 코르셋이나 페티코트의 부자연스러움으로부터 해방된 신체에 꼭 끼지 않고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드레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행커치프 포인트 드레스<그림 3,4>는 식서대로 자른 4개의 사각형으로 재단되어 입는 사람의 움직임과 그 형태에 따라 유동성을 가져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고 어깨에서 아랫단으로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겨 행커치프 포인트가 형성되어 결국 고대 그리스 시대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밈이나 트임이 없어 머리위로 입어야 하는⁹⁾ 이 드레스의 어깨는 바느질 전에 꼬아져서 어깨와 가슴 닛트를 대신하였다.

삼각형에 의한 디자인은 닛트나 절개선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삼각형태의 무(gusset)나 사다리꼴의 고데(godet)를 끼워 넣는 방법¹⁰⁾으로 슬래시와 삽입(insertion)의 독특한 이 재단방법은 입체적인 디자인의 옷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양쪽 허리 옆에 삼각무가 있는 비대칭 헴 라인 드레스<그림 5,6>는 닛트대신 옆선에 두 개의 다이아몬드형의 무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드레스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 드레스에서 보여지는 헴 라인의 비대칭은 불균형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역동적이고 성숙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분원에 의한 디자인은 원을 4등분한 하나를 사분원¹¹⁾이라 하며, 우아한 드레이핑의 조형 효과를 만들 수 있었다. 파자마 드레스<그림 7,8>는

패턴 부분에서 최대혁신을 얻은 것 중의 한 예이다. 전통적인 프린세스 라인의 상의와 스커트 부분이 되는 원형의 4분의 3 부분은 재단되어 뒤 부분은 스커트가 되고 반면 앞쪽은 바지가 된다. 이것은 뒤에서 앞 중앙으로 몸을 감싸는 천이 중앙 뒤에 달으면서 다리를 감싸 드레스를 완성한다.

특히 그녀의 독창적인 방법 중에는 대상하는 대신 인체의 4분의 1크기의 목재 인형을 이용해 직접 옷감을 걸쳐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본 후 재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바이어스 커팅의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상적인 드레스를 제작할 수 있게 하였다.¹²⁾ 이처럼 바이어스 방향으로 사각형이나 삼각형, 사분원으로 재단된 기하학적인 조각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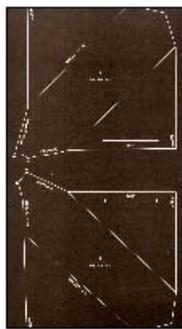
정교하게 꿰매어지고 이어져 과거 평면으로 여겨졌던 인체를 입체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시도가 되었다. 이것은 20세기 조형예술인 순수성의 지향을 충족시키고 여성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결국 여성의 몸을 더욱더 날씬하고 우아하며 아름답게 만들어주었다.

3. 그리스 복식 이미지의 클래식 스타일

원래 고대 그리스 시대의 복식에서 보이는 드레이퍼리의 표현은 인체의 곡선에 따라 자연스러운 미를 빚어내고 부드러운 천에 의해 율동감을 창조해내며 옷감을 걸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를 줄



<그림 3> 비오네의 사각형에 의한 디자인의 행커치프 포인트 드레스, 1919-20 -*Madeleine Vionnet 1*, p.22.



<그림 4> 비오네의 사각형에 의한 디자인의 행커치프 포인트 드레스 패턴, 1919-20 -*Madeleine Vionnet 1*, p.55.



<그림 5> 비오네의 삼각형에 의한 디자인의 비대칭 험라인 드레스, 1929 -*Madeleine Vionnet 1*, p.142.



<그림 6> 비오네의 삼각형에 의한 디자인의 비대칭 험라인 드레스 패턴, 1929 -*Madeleine Vionnet 1*, p.143.



<그림 7> 비오네의 사분원에 의한 디자인의 파자마 드레스, 1937 -*Madeleine Vionnet 1*, p.91.



<그림 8> 비오네의 사분원에 의한 디자인의 파자마 드레스 패턴, 1937 -*Madeleine Vionnet 1*, p.91.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³⁾ 그 결과 그들은 지중해성 온화한 기후와 부드러운 직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걸쳐 돌려 입음으로써 신체에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를 보여주는 결과를 형성하였다.

그리스 시대의 키톤(chiton)은 초기의 움직임이 없는 페플로스(peplos)보다도 그 이후 도릭 키톤(Doric chiton)과 이오닉 키톤(Ionic chiton), 그리고 망토 형식의 히마티온(himation)에서 드레이퍼리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헬레니즘시대에는 주름의 미로 인한 에로틱한 이미지를 많이 보이며 키톤에 나타난 전체적인 드레이퍼리는 한 장의 천으로 의복 자체에 표현성을 주면서 동시에 드레이퍼리의 조화를 중심으로 미적으로 우수한 장식적인 역할을 하였다.¹⁴⁾

이러한 드레이퍼리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비오네는 “나는 예전 의상과 지나간 시대의 패션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그 시대를 잘 말해주는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옷들은 그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관해 아주 많은 것을 말해준다. 나는 그리스의 향아리와 그 위에 묘사된 아름다운 옷차림의 여성들을 통해 영감을 얻는다. 심지어 향아리 그 자체의 고귀한 선에서도 영감을 얻는다.”¹⁵⁾라고 언급하였다. <그림 9>는 고대 그리스의 우아한 주름의미를 스커트의 헴라인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림 10>¹⁶⁾은 비스듬하게 접은 개더가 고대 그리스의미를 보여주는 드레스로 이처럼 그녀는 그리스의 아름다운 작품을 그 나름대로 재해석한 클래식 스타일을 발표하였다.



<그림 9> 고대 그리스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 드레스, 1937 - *Madeleine Vionnet 1*, p.44.



<그림 10> 고대 그리스 주름을 연상시키는 드레스, 1935-36 - *Vionnet*, p.12

III. 크리스찬 디오르 컬렉션에 나타난 마들렌 비오네 디자인 이미지

1997년 크리스찬 디오르 메종의 수석 디자이너가 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1960~)는 바이어스 재단의 일인자로 드레이퍼리가 주는 환상적인 요소를 의상에 적절히 사용해 창의적인 드레이핑에 의한 표현을 보이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패션을 기발한 무대의상 분위기로 가장 화제를 모으며 파리 오트 쿠튀르 제1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 패션에 미친 그의 큰 영향은 바이어스 재단을 부활시킨 것으로 이는 비오네의 디자인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되었다.¹⁷⁾ 그녀를 존경하는 갈리아노는 바이어스 커팅을 이용해 고전적 전통성을 독창적으로 재구성하고 움직임 있는 표현으로 작업하여 끊임없이 새로운움을 추구하는 디자이너이다.

갈리아노의 디자인 특징을 이귀영·조규화(2009)는 “기존의 패션 경향을 타파하여 재미와 젊음을 강조한 펀 앤 영(fun & young)각각의 캐주얼화, 성과 동서 문화의 퓨전(fusion), 로코코의 낭만성과 중세의 근엄함을 재창조한 레트로스펙티브 스타일(retrospective style), 패셔너블한 팜 파탈 스타일(femme fatale style)의 뉴웨이브의 다양한미를 비오네 이미지의 드레이퍼리에 의해서 드라마틱하면서도 여기에 ‘에이지 다운(age down)’ 효과의 독특한 의상으로 특히 마르고 큰 서양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화려하고 과장된 화장과 드레스를 입체적인 볼륨에 초점을 두어 갈리아노 방식의 미를 완성시켰다”¹⁸⁾고 지적했다.

디오르 컬렉션에 나타난 비오네 디자인 이미지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1> 디오르 컬렉션에 나타난 비오네 디자인 이미지

Madeleine Vionnet						
	<p><그림 11> 로맨틱한 러플 드레스, 1934 -Madeleine Vionnet 1, p.100.</p>	<p><그림 13> 라메 크리놀린 풍 드레스, 1938 -Madeleine Vionnet 2, p.261.</p>	<p><그림 15> 블랙 크레이프 장미 장식 드레스, 1921-22 -Madeleine Vionnet 2, p.163.</p>	<p><그림 17> 플라운스 장식 새틴 크레이프 드레스, 1920 -Madeleine Vionnet 3, p.78.</p>	<p><그림 19> 로맨틱한 플라운스 드레스, 1930년대 -Madeleine Vionnet 2, p.249.</p>	<p><그림 21> 라이트 블루 새틴 크레이프 바이어스 커팅 드레스, 1925-26 -Madeleine Vionnet 1, p.17.</p>
<p>·정적인 이미지의 여성스러운 디자인 ·뉴트럴 칼라 사용 ·바이어스 커팅에 의해 당시 통통한 여성을 날씬하고 우아하게 표현</p>						
Christian Dior Collections						
	<p><그림 12> 밝은 색상의 캐주얼한 러플 스커트, Dior Haute Couture, 03-04 F/W, Mode et Mode, p.50.</p>	<p><그림 14> 틀 소재의 풍성한 크리놀린 풍 드레스, Dior Haute Couture, 07 S/S, Mode et Mode, p.25.</p>	<p><그림 16> 걸리시 스타일 시폰 장미 장식 드레스, Galliano Prêt à Porter, 08 S/S, Mode et Mode, p.31.</p>	<p><그림 18> 플라운스 장식 슈트, Galliano Prêt à Porter, 07-08 F/W, Mode et Mode, p.22.</p>	<p><그림 20> 크리놀린 이미지 플라운스 이브닝 드레스, Dior Haute Couture, 07 S/S, Mode et Mode, p.36.</p>	<p><그림 22> 바이어스 커팅 드레스, Dior Haute Couture, 04-05 F/W, Mode et Mode, p.84.</p>
<p>·동적인 이미지의 과감한 디자인 ·컬러풀한 칼라 사용 ·바이어스 커팅에 의해 입체적인 볼륨에 초점을 두어 새로운 형태를 극적으로 표현</p>						

비오네의 로맨틱한 러플 드레스<그림 11>는 여성스럽고 우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면 갈리아노의 러플 스커트<그림 12>¹⁹⁾는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과장된 볼륨감에 캐주얼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오네의 크리놀린 풍 드레스<그림 13>²⁰⁾는 화려하지만 차분고 정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갈리아노의 툴 소재의 풍성한 크리놀린 풍 드레스<그림 14>는 화려하고 동적이며 여기에 입체적인 볼륨이 강조된 과장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오네의 장미 드레스<그림 16>는 작은 장미꽃 모티프를 여성스럽고 차분하게 표면 장식으로 사용한 반면 갈리아노의 장미꽃 모티프 드레스<그림 16>는 과장된 화장과 꽃 장식의 볼륨이 커지고 걸리시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비오네의 플라운스 장식 드레스<그림 17>²¹⁾는 표면장식이 정적이고 드레시한 느낌을 주는 반면 갈리아노의 플라운스 꽃잎 장식의 슈트<그림 18>는 동적이며 팜프 파탈의 퇴폐적인 이미지로 상반된 느낌을 주고 있다. 비오네의 플라운스 드레스<그림 19>는 가벼우며 부드럽고 로맨틱한 여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반면 갈리아노의 크리놀린 이미지의 플라운스 드레스<그림 20>는 과장된 화장과 드레스의 볼륨감으로 스케일이 커진 도발적인 요부 이미지를 드레스로 표현하였다. 비오네의 바이어스 커팅 드레스<그림 21>로 갈리아노는 비오네의 드레스를 색상을 다르게 하여 같은 느낌의 드레스<그림 22>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갈리아노는 정적이고 우아한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비오네 드레이퍼리를 환상과 과잉이라는 테마와 여기에 표면이 맛있는 직물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기법의 믹스를 통해 날씬하게 보이며 신체를 의식하지 않는 새로운 신체의 형태로 재구성된 극적인 표현을 하여 비오네의 디자인과는 상반되는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컬렉션에서 독특한 개성과 실험적인 창조성으로 세계 패션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갈리아노의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극적인 의상들은 비오네의 바이어스 커팅이라는 놀라운 기술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으며, 특히 그의 드레이퍼리에 의한 새로운 스타일의 창조는 역사주의와 민속풍을 가져와 해체시키고 최신의 기술과 연구를 통해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작품으로 재구성하는 결과로 현대 패

션 디자이너들에게 창조적인 사고를 제안하고 세계 패션의 중심과 스타일 혁신의 선봉에 서 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오네가 활동한 시대(세기말~1940년)는 모든 면에 변화가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다. 특히 20세기 초반 현대예술조형에서는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면서 근원적인 커다란 예술의 조류인 순수성의 지향으로 순수미를 추구하는 새로운 취미가 나타나면서 디자인계에 나타난 표면양식의 단순함은 20세기를 특징짓는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맞추어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했던 비오네는 20세기 사상적 조류와 함께하여 순수미를 추구하는 바이어스 커팅이라는 놀라운 기술을 내놓았다.

비오네의 바이어스 재단법은 현대 패션에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낼 수 있는 귀중하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적 발판이 되어 패션계에 위대한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의 갈리아노에 의해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비오네 기술의 위대함을 현재까지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마들렌 비오네의 디자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29년 바이어스 커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내놓아 복식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이루었다. 이것은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과 기술력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개개인의 여성이 갖는 개성과 아름다움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어스 커팅은 이전에 드레스가 무시했던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실루엣을 완벽하게 표현해주면서 드레이프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둘째, 기하학적인 방법에 의한 디자인을 고안하였다. 특히 사각형이나 삼각형, 사분원으로 재단된 기하학적인 조각들은 정교하게 꿰매어지고 이어져 과거 평면으로 여겨졌던 인체를 입체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시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당시 통통한 여성의 단점을 보완하여 드레이프를 형성하며 날

씬해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그리스 복식 이미지의 클래식 스타일이다. 이것은 고전 그리스 시대 키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변형과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오네는 바이어스 커팅에 의한 디자인을 정적인 이미지의 여성스러운 드레스로 뉴트럴 칼라 사용하여 클래식한 표현의 디자인으로 당시의 통통한 여성을 날씬하게 보이도록 한 반면 갈리아노는 디오르 컬렉션에서 바이어스 커팅에 의한 디자인을 동적인 이미지의 과감한 디자인과 컬러풀한 칼라를 사용하여 환상과 과잉이라는 테마와 여기에 평면직물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기법의 믹스를 통해 신체를 의식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다. 또한 마르고 큰 서양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아름답게 보이며 입체적인 볼륨감에 초점을 두어 극적인 표현을 하여 비오네의 디자인과는 상반되는 아름다움을 창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컬렉션에서 독특한 개성과 실험적인 창조성으로 세계 패션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갈리아노의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극적인 의상들은 바이어스 커팅이라는 놀라운 기술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오르 컬렉션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사진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에 비오네의 패턴 양식인 사각형·삼각형·사분원에 의한 디자인으로 각각 구분할 수는 없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패션디자이너의 위대한 업적이 다음세대 패션디자이너에게 계승되고 현재에도 무한한 영감과 다양한 조형미를 창출하게 하여 계속되는 재창조 작업을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조규화 외(2004), *패션미학*, 수학사, pp.31-32.
- 2) Betty Kirke(1998), *Madeleine Vionnet 1*, San Francisco:Chronicle Books. pp.46-140.
- 3) 김희균·조규화(2000), “바이어스 드레이핑 디자인 연구”, *패션비즈니스*, 4(4), pp.1-16.

- 4) 최진영·조규화(2007), “마들렌 비오네의 디자인 연구”, *패션비즈니스*, 11(1), pp.26-37.
- 5) Betty Kirke, op.cit., p.6.
- 6) Ibid., p.6.
- 7) 南 靜(1990), *パリモードの二〇〇年*, 東京:文化出版局, p.156.
- 8) Ibid., p.35.
- 9) Diana Vreeland(1977), *Inventive Paris Clothes 1909~1939*, New York:A Studio Book, The Biking Press, p.50.
- 10) Gerda Buxbaum(1999), *Icons of Fashion : The 20th Century*, Munich & New York : Prestel Verlag. p.39.
- 11) Ibid., p.80.
- 12) 南 靜, op.cit., p.156.
- 13) François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H.N. Abrams, p.27.
- 14) 조규화 외, op.cit., pp.140-141.
- 15) Betty Kirke, op.cit., p.41.
- 16) Lydia Kamistis(1996), *Vionnet*, London : Thames and Hudson. p.20.
- 17) Gerda Buxbaum, op.cit., p.168.
- 18) 이귀영·조규화(2009), “존 갈리아노 컬렉션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크리스찬 디오르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3(2), pp.56-60.
- 19) Mode et Mode(2000 S/S ~ 2009 S/S), Tokyo : Mode et Mode Sha. Co., Ltd. p.50.
- 20) Jaqueline Demornex(1991), *Madeleine Vionnet 2*, London:Thames and Hudson, p.261.
- 21) Pamela Golbin(2009), *Madeleine Vionnet 3*, New York : Rizzoli. p.78.

접수일(2009년 9월 28일)

수정일(1차 : 2009년 11월 2일, 2차 : 11월 23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30일)